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사제

## 시복시성기도문

○ 자극한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느님,  
최양업 토마스 사제를 보내주시어  
혹독한 박해로 쓰러져 가는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으니  
그 자애로운 은총에 감사하나이다.

● 땀의 순교자 최양업 토마스 사제는

굳건한 믿음과 불타는 열정으로  
구만리 고달픈 길을 마다하지 않고  
방방곡곡 교우촌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신자들을 돌보는 데  
온 정성을 다 바쳤나이다.

◎ 자비로우신 주님,

간절히 청하오니  
최양업 토마스 사제를 성인 반열에 들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그의 선교 열정과 순교 정신을 본받아  
이 땅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몸 바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사제의

삶과 신앙 안에서 봉헌하는

십자가의 길



가정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걷는  
십자가의 길에 주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도우심을 청하며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주 예수님

양떼가 있는 곳이면 어디라도 찾아 나섰던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저희를 위해 온갖 수난을 인내하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저희도 일상 안에서  
선교에 대한 열망과 사명감으로 일생을 바친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을 본받아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 **제 1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 제1처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신학생이 될 소양을 갖춘 소년들을 천거하라는 모방 신부의  
말씀에 제일 먼저 불리어진 이름은 최양업 토마스였습니다.  
그의 나이 열다섯!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한 뒤  
마카오를 향해 지나간 여정에 오릅니다.

이 시작은 순명의 첫걸음이며  
이 땅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조국의 양떼들을 가슴에 품고  
걷고 또 걸어야 하는 고난의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순명의 서약!

◎ 사소한 것에도 절대로 굽히지 못하는 저를 봅니다.

주님, 더 큰 사랑을 위해 기꺼이 순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잠깐 묵상한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제2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 제2차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한발 앞서 사제품을 받고 고국에 입국했던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순교 소식……(최양업 신부의 네 번째 서한)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 오직 조국의 구원만을 바라보며

모진 고난을 함께 이겨냈던 한 핏줄인 형제였습니다.

「우리 부모와 형제들을 따라갈 공을 세우지 못하였으니 제 신세가 참으로 딱합니다. 언제쯤이나 저도 저의 형제들의 고난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 구원 사업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최양업 신부의 두 번째 서한)

세 명의 신학생으로 출발하였는데, 이제 혼자 되었습니다.

동료들의 뒤통까지 살아내야 하는 또 하나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 주님, 제가 원하지는 않았으나

당신께서 저를 위해 고르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게 해 주십시오.

(잠깐 묵상한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제3차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 제3차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통역으로 프랑스 함대에 동승했던 최양업 부제는  
함선이 좌초되어 고군산도 신시도에 상륙합니다.

실로 오랜만에 동포들을 보고 말을 나누며 크게 위로를 받습니다.

희망과 조바심을 가득 안고 신자들을 만날 날을 기다리나  
끝끝내 아무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군산도에 남아 있기를 원하여 함장에게 서원까지 하면서  
간절히 소망하였으나 손 안에까지 들어온 우리 포교지를 다시 버리  
고 부득이 상해로 되돌아오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흘렸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잃지 않고 낙담하지 않으며,  
여전히 하느님의 자비를 바라고, 섭리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느님 손에 맡겼으니, 그분을 언제나 믿을 것입니다.」

(최양업 신부의 다섯 번째 서한)

◎ 주님, 제 뜻이 좌절되어 낙담하게 될 때

온전히 하느님의 섭리에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잠깐 묵상한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제 4차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 제4처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이성례 마리아는 갓난아기와 감방에 수감되고 법정에서 켜다. 팔, 다리는 고문으로 으스러지고 곤봉으로 찢겼으나 그리스도를 용감하게 증언합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문보다 더 큰 고통은 모성애였습니다. 갓난아기가 젖을 달라고 하는데 젖은 나오지 않고, 먹일 것이 없어서 엄마의 눈앞에서 굶어 죽어 갑니다. 곤장에도 칼에도 용맹하였으나 자식에 대한 애정에는 약해집니다.

“나는 천주를 모르오…….”

만아들 최양업 토마스를 마카오에 보냈다는 사실이 탄로되어 다시 형조로 잡혀왔을 때, 마리아는 잘못을 뉘우치고 불충실한 배교를 용감히 취소합니다.

마침내 자기의 갓난아기가 기아와 비참으로 눈앞에서 죽는 끔찍함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두 아들(최양업 신부와 갓난아기)을 하느님께 바친 것을 기뻐합니다.(최양업 신부의 여덟 번째 서한)

◎ 주님, 사랑하는 이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이 내 자신의 고통보다 힘겹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진리를 외면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잠깐 묵상한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제 5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 제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양반 집안 출신인 안나는 19년 동안 외교인 집안에서 철저히 간혀 지내면서도, 언젠가는 성사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제 한 사람을 보내 주십시오!”

한 충실한 여교우가 이 소식을 신부님께 전합니다. 고해소를 꾸밀 곳도, 성체를 모실 곳도, 심지어 안나를 상면할 장소도 찾을 수 없었지만, 신부님은 성체를 모시고 무작정 50리 길을 서둘러 달려갑니다.

길가는 나그네가 잠시 쉬는 모양새로 강가에 앉아 안타까움을 달래고 있을 때, 여교우는 안나가 성찰한 쪽지를 가져옵니다. 신부님은 앉은 자리에서 그것을 읽은 후 마침 남자들은 발에 나가고 어린아이만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가, 재빨리 사죄경을 염해 주고 성체를 영해 준 후 도망치듯 나옵니다.

신부님은 하느님께 최상의 감사를 드립니다.(최양업 신부의 일곱 번째 서한)

◎ 주님,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저의 이름은 시몬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잠깐 묵상한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제 6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 제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 드림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교우들은 단 한 번이라도 사제의 얼굴을 보는 것이 큰 은총입니다. 더 자주 그러한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이틀이나 사흘의 길을 걷는 것쯤은 오히려 가깝게 여깁니다. 우리는 신자들이 사제를 보기 위해서나 미사성제에 참여하기 위해 때를 지어 한꺼번에 급히 몰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 항상 매우 엄격하게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위반하는 신자들에게 아무리 벌을 내려도 신자들은 이 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만은 신자들이 막무가내로 순명하지 않습니다.」(최양업 신부의 일곱 번째 서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선

그 어떤 고난도, 벌도 개의치 않는 순박함을 봅니다.

사제의 얼굴을 뵈는 것이 곧 주님의 얼굴을 뵈는 것임을……

그분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단순한 사랑이 그림습니다.

◎ 주님, 우리의 영혼을 당신께로 이끄는 사제들에게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리듯  
사랑과 존경의 수건을 대어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잠깐 묵상한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제 7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 제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1849년 4월 15일,

그의 나이 스물여덟에 사제로 서품됩니다.

최양업 신부에게 중요한 것은 하루빨리 타국의 귀양살이에서 벗어나 조국의 구원 사업에 동참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극히 좋으신 하느님, 저의 주님이시여!

만일 제가 당신 분노의 원인이라면, 저를 바다 속 깊이 던져 주시고, 당신 종들의 참상을 불쌍히 여기소서. 본시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치욕을 당하며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 외에는 아무 가치도 없는 당신의 작품입니다. 오로지 저에 대한 당신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이 제 안에서 저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최양업 신부의 여섯 번째 서한)

신부님은 서품 직후, 해로를 통해 다섯 번째 귀국을 시도 했지만 또다시 실패합니다. 그 후 요동 차쿠에서 7개월을 보좌 신부로 사목합니다.

◎ 주님, 거듭되는 실패로 비참해질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당신과 함께 찾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잠깐 묵상한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제8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 제8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7월의 무더위 속에 40여 명이 넘는 신자들을 이끌고  
수리산에서부터 서울 감옥까지의 압송 길을  
앞장서서 걸어간 최경환 프란치스코!  
작열하는 피약별 아래에서 지쳐 힘겨워 하는 교우들을 격려하며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형제들이여 용기를 내시다. 주님의 천사가 황금으로 만든 자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재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장을  
서서 십자가를 지고 갈바리아 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런 열렬한 애덕에서 나온 격려 소리를 들으며  
교우들은 서울에 도착합니다.(최양업 신부의 여덟 번째 서한)

똑같이 힘겨운 상황인데도  
다른 이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 주님,

같은 처지라 당연시하는 무심함을 떨쳐내고  
누군가의 힘과 위로가 되는 온유함을 갖게 해 주십시오.

(잠깐 묵상한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제9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 제9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저는 순방 중에 지독히도 가난에 찌든 사람들의 비참하고 궁핍한 처지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들을 도와줄 능력이 도무지 없는 저의 초라한 꼴을 보고 한없이 가슴이 미어집니다. 동포들로부터 오는 박해, 부모들로부터 오는 박해, 배우자들로부터 오는 박해뿐 아니라, 친척들과 이웃들로부터도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험준한 산속 골짜기로 들어가 초라한 움막을 짓고는, 2년이나 3년 동안 만이라도 마음 놓고 편안히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최양업 신부의 일곱 번째 서한)

제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곤 합니다.

사방팔방 어디를 봐도 절망뿐이고, 답답함에 화가 납니다.

◎ 그러나 주님,

저의 의지를 불러일으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인

당신의 자비와 사랑을 주십시오.

조용히 침묵하며 내면의 소리를 통해 들려주는

당신의 이끄심을 알아듣게 해 주십시오.

(잠깐 묵상한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제 10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 제10차 예수님께서 옷 벗김 당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우리는 한밤중에 매서운 추위를 피하기 위해 유숙했던 주막에서  
쫓겨나 매를 흠뻑 두들겨 맞고, 또 의복이 찢어져 반쯤 나체가  
되었고, 강추위로 몸이 뚝뚝 얼어붙었고, 고통으로 몸과 마음이  
기진맥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캄캄한 밤중이라서 우리의 처참한 꼴을  
감출 수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비틀거리며 관가에서 풀려난 것만  
기뻐하였습니다.」(최양업 신부의 열일곱 번째 서한)

치욕의 순간에도 더 큰 사랑을 품을 수 있다면

그 치욕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주님께서 마련하신 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 주님, 보이지 않는 선을 찾아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잠깐 묵상한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제 11차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 제11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네가 정말 죽기를 바라느냐?”

“저도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죽기를 사양하지 않습니다.”

“너의 종교를 위해 죽겠다는 말이 참말이라면 네가 죽을 때까지 치도록 하마.”

최해성 요한의 몸은 온통 피투성이가 되고, 살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뼈가 드러났으나, 하느님의 사랑으로 불붙은 그의 영혼은 기쁨으로 용약하였습니다. 얼마나 모질게 고문을 당하였는지 살과 가죽이 헤어져 창자가 몸 밖으로 쏟아져 나왔으며 뼈가 으스러졌습니다.

그가 순교하는 날, 천국으로 가는 기쁨에 옥사쟁이들에게 작은 잔치를 베풀고 최후의 형장으로 끌려 나갑니다.」(최양업 신부의 열두 번째 서한)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용서해 달라 청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나를 극도의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너를 위해 잔치를 베푸는  
당신을 닮은 종의 모습을 봅니다.

◎ 주님, 악을 선으로 갚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저도 배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잠깐 묵상한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제 12차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 제12차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정확히 11년 6개월!

매년 7천 리 이상을 걸어 다니며 흩어진 양들을 찾아 성사의 은총을 전해 주느라 길에서 산 사나이,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생애 마지막엔 경신박해로 죽림 공소에 갇혀 지낸 뒤,  
위험을 무릅쓰고 교우들을 순방하러 길을 나선 신부님.  
낮에는 걷고, 밤으로만 신자들을 찾아 성사를 주느라  
한 달 동안에 취할 수 있었던 휴식은 나흘 밤을 넘지 못했습니다.  
결국 과로로 지친 몸에 장티푸스가 찾아옵니다.(폐롱 신부의 서한)

그토록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교우들!  
그들과 더 함께하지 못해 애태우고,  
더 도울 수 없음에 자책하던 착한 목자!  
마침내, 양떼를 붙잡았던 손을 내려놓습니다.  
1861년 6월 15일, 그의 나이 마흔이었습니다.

◎ 주님, 손을 놓아야 할 때 당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집의 끈을 내려놓아야 할 때

빈손으로 돌아가는 저를 보게 해 주십시오.

오직 당신을 향한 기쁨이 삶의 전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잠깐 묵상한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제 13차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 제13차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이것이 저의 마지막 하직 인사가 될 듯합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계속 추적하는 포졸들의 포위망을 빠져 나갈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불쌍하고 가련한 우리 포교지를 여러 신부님들의 끈질긴 염려와 지칠 줄 모르는 애덕에 거듭거듭 맡깁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자비를 잊지 마소서.

저희 눈이 모두 당신의 자비에 쏠려 있습니다.

저희의 모든 희망이 당신의 자비 안에 있습니다.」

(최양업 신부의 마지막 서한)

이별의 순간은 아픔이고 안타까움입니다.

이별은 떨치기 힘든 불안과 실의에 잠기게 합니다.

이별의 마지막 어루만짐은 사랑입니다.

하느님의 자비 안에 머무를 수 있기를 청합니다.

◎ 주님,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져야 할 때

당신의 크신 자비를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잠깐 묵상한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제 14차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 제14차 예수님께서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장티푸스로 쓰러져 보름 넘게 고생하신 신부님.

병자성사를 받고 마침내 천국으로 향하신 신부님.

숨을 거둘 때까지 ‘예수 마리아’부르기를 그치지 않으시던 신부님.

그분의 시신은 생애 마지막을 보낸 진천의 작은 교우촌에 가매장됩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초,

그분의 유해는 다시 배론 신학교 뒷산으로 옮겨집니다.

마지막 순방 결과를 보고하지 못한 채

교구장 베르뇌 주교의 장엄 예절 아래 안장됩니다.

◎ 주님,

당신의 종 최양업 토마스 사제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신앙과 선교 열정을 본받아

저희도 뜨겁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잠깐 묵상한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마침 기도

◎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싹 말라버린 저희 땅에

당신 자비의 소나기를 퍼부어 주소서

진리에 목말라 목이 타고 있는 저희에게

당신 구원의 물을 실컷 마시게 해주소서.

(최양업 신부의 여덟 번째 서한)

주님,

당신께서 저희를 위해 고르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제 생긴 모습 그대로

가진 능력 그대로

제가 서 있는 바로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걸겠습니다.

저의 삶으로 십자가의 길을 완성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사제의  
삶과 신앙 안에서 봉헌하는

# 묵주기도



## ○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하며,  
가정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시복 시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부님은 지금의 청양군 화성면 농암리의 다락골에서 최경환 프란  
치스코 성인과 복녀 이성례 마리아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는 나눔과 봉사 안에서 교리를 실천하신 분이고, 어머니는 신앙 안에  
서 가족들을 극진히 사랑하신 분이었습니다. 신부님은 어릴 때부터 이  
러한 부모님의 모범과 신앙을 먹고 자랐습니다.

신부님의 가족은 박해 때문에 자주 이사를 다녀야 했지만, 조금도  
이를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실한 하느님의 종으로  
성장한 소년 최양업은 1836년 초에 첫 번째 신학생으로 선발됩니다.  
그때 조선의 유일한 목자였던 모방 신부님은 그의 됴됨이를 알아보고  
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최양업 토마스는 훌륭한 방인 사제가 될 것입니다.  
그는 온순하며 순박하고, 열심과 순명으로  
공부에 전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주님의 기도, 성모송(10번), 영광송, 구원의 기도

## ○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하며,  
청주 병영 순교 복자 원시보 야고보와 배관겸 프란치스코의  
시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서울에서 라틴어를 공부하던 최양업 신학생은 얼마 뒤 동료 신학생  
으로 최방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와 김대건 안드레아를 맞이하였습  
니다.

1836년 12월 2일. 십자가와 모방 신부님 앞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한 세 명의 소년들은 이튿날 서울을 떠나 유학길에 올랐습니  
다. 목적지인 파리외방전교회 극동 대표부가 있는 마카오까지는 1만  
리나 되었습니다. 열다섯 소년들은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고, 만리장  
성을 넘고, 산 설고 물 설은 대륙을 가로질러 가야만 했습니다. 마카오  
에서 이들을 맞이한 바랑탱 신부님은 자신의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  
니다.

“세 명의 어린 조선 신학생들이 이곳 마카오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7개월 동안 가혹한 여행 끝에  
중국 대륙을 걸어서 관통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조선의 희망입니다.”

◆ 주님의 기도, 성모송(10번), 영광송, 구원의 기도

### ○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하며,  
음성 출신의 순교 복자 이국승 바오로의 시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837년 6월 7일. 마카오에 도착한 신학생들은 대표부 안의 조선대  
목구 신학교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시련과 슬픔이 그들  
모두에게 덮쳐왔습니다. 최방제 신학생이 쓰러진 것입니다. 최양업과  
김대건 신학생은 마지막 순간까지 “좋으신 하느님! 좋으신 예수님!”을  
되풀이하는 동료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영원한 안식을 기원  
했습니다.

칼트리 교장 신부님은 최방제 신학생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보고  
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학생은 믿음이 깊고  
신심이 강했습니다. 조선 교회의 아름다운  
존재로 촉망되던 그가 꽃다운 나이에 그만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1839년에 조선 교회는 기해박해로 인해 풍비박산되었습니다. 이 해  
에 신학생들은 필리핀의 톨로보이에서 잠시 피난생활을 하다가 마카  
오로 귀환했습니다. 그들이 부모님의 순교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훨씬  
뒤였습니다.

◆ 주님의 기도, 성모송(10번), 영광송, 구원의 기도

## ○ 환희의 신비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하며,  
청주 장터 돌림매 순교 복자 김사집 프란치스코의 시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양업과 김대건 신학생은 신학과 철학을 비롯하여 서양의 근대 문화와 역사를 배웠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유행하던 손풍금도 익히고, 서양식 성가와 근대 음악도 배웠습니다.

어느덧 그들은 스물한 살의 청년 신학생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때 마카오에 도착한 조선 선교사 매스트르 신부님은 그들과의 동행을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얼마 뒤 조선 신학생들은 북쪽의 만주대목구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만일 두 학생이 저와  
동행하는 날이 온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만리장성을 넘을 것입니다.”

1842년 프랑스 군함이 마카오에 도착하자, 조선 신학생들은 대표 신부님의 명에 따라 그 배에 승선하였습니다. 만일 프랑스 군함이 조선으로 간다면 귀국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희망은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프랑스 군함이 조선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 주님의 기도, 성모송(10번), 영광송, 구원의 기도

## ○ 환희의 신비 5단

마리아께서 잃으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하며,  
육정의 고통을 극복한 사제의 어머니, 복자 이성례 마리아의  
시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프랑스 배에서 내린 신학생들은 어렵게 구한 중국 배를 타고 조선과  
가까운 요동으로 향했습니다. 1842년 10월, 지금의 요동 땅 장하시 해  
변에 도착한 신학생들은 백가점과 양관 교우촌을 거쳐 장춘 인근의 소  
팔가자 교우촌으로 갔습니다.

최양업 신학생은 이 무렵에 기해박해 순교자들과 부모님 소식을 들  
을 수 있었습니다. 비통함 속에서도 그는 스승 신부님께 보낸 서한에  
서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해로 순교한 부모와 형제들을 따라갈 공을  
세우지 못했으니 제 신세가 참으로 딱합니다.  
그리스도 용사들의 것처럼 장렬한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2년 뒤인 1844년 12월 초, 조선 신학생들은 소팔가자 성당에서 제3  
대 조선대목구장 페레올 주교님으로부터 부제품을 받았습니다. 이후  
매스트르 신부님과 최양업 부제는 그곳에 남고, 김대건 부제는 페레올  
주교님의 명에 따라 귀국길에 나섰습니다.

◆ 주님의 기도, 성모송(10번), 영광송, 구원의 기도

## ○ 빛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묵상하며,  
청주 진영 순교 복자 오반지 바오로의 시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845년 1월 조선에 들어갈 수 있었던 김대건 부제는 교우들과 함께 중국 상해로 건너갔고, 8월 17일에는 페레올 주교님으로부터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페레올 주교님, 다블뤼 신부님과 함께 충청도 강경 땅으로 귀국했습니다.

서울과 용인에서 잠시 사목하던 김대건 신부님은 바닷길을 개척하기 위해 황해도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순위도 앞바다에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고, 이후 40여 차례에 걸쳐 문초를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 군문효수형 판결에 따라 1846년 9월 16일 서울 새남터에서 순교의 화관을 얻었습니다.

그에 앞서 신부님은 스승과 동료 최양업 부제에게 다음과 같은 하직인사를 남겼습니다.

“지극히 공경하올 신부님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하는 나의 형제 최양업 토마스여 잘 있게.  
천당에서 다시 만나세. 나의 어머니 고 우르술라를 특별히 보호해  
주도록 부탁하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목인 저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굳게 믿습니다. 하느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의 환난을 굽어보소서!”

◆ 주님의 기도, 성모송(10번), 영광송, 구원의 기도

## ○ 빛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하며,  
진천 발래기 출신의 순교 복자 김원중 스테파노의 시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소팔가자 성당에 남은 최양업 부제는 소신학생들을 지도하는 한편,  
1846년 초부터는 매스트르 신부님과 함께 귀국길을 찾아다녔습니다.  
두만강 인근의 훈춘으로, 다시 압록강 근처의 변문으로 가서 조국의  
문을 두드렸으나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훈춘에서는 관원에게 체포되었다가 3일 만에 석방되기도 했습니다.  
변문에서 만난 조선 교회의 밀사들은 병오박해 때문에 국경 감시가 심  
해졌다는 이유로 입국을 만류하였습니다. 게다가 매스트르 신부님과  
최양업 부제는 밀사들로부터 김대건 신부님의 순교 소식을 듣게 됩니  
다.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비참한 소식에 경악했습니다.  
저와 조국 전체의 가련한 처지가 위로받을 수  
없을 만큼 애통하였습니다. 저의 가장 사랑하는  
동료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죽음은  
특히 비통한 소식이었습니다.”

◆ 주님의 기도, 성모송(10번), 영광송, 구원의 기도

### ○ 빛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하며,  
청주 장대의 순교 복자 장 토마스의 시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847년 초 홍콩의 파리외방전교회 대표부에 도착한 최양업 부제는 페레올 주교님이 보내온 〈조선 순교자들의 행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교님의 명에 따라 프랑스어 행적을 라틴어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최양업 부제가 번역한 〈조선 순교자들의 행적〉은 파리를 거쳐 교황청으로 보내졌고, 여기에 수록된 82명의 순교자들은 모두 1857년 9월에 가경자로 선포됩니다. 다음은 최양업 부제가 라틴어 번역 작업을 끝마치면서 바친 기도문입니다.

“순교자들의 임금이신 주님,  
영원으로부터 감추어진 십자가의 권능과  
지혜를 제 마음 안에 부어주시어 저로 하여금  
당신의 거룩한 십자가의 종들과 함께  
당신의 거룩한 마음과 지극히 복되신 성모님의  
달고 단 사랑과 순교자들의 공로를 통하여  
현세에서는 전우가 되게 하시고  
후세에서는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 주님의 기도, 성모송(10번), 영광송, 구원의 기도

## ○ 빛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하며,  
진천 절골의 복자 박경진 프란치스코, 오 마르가리타 부부의  
시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847년 8월, 최양업 부제는 프랑스 군함을 타고 지금의 군산 앞바다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군함이 좌초하면서 신시도에 상륙하여 1개월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 동안 최양업 부제는 프랑스 함장과 조선 관리들과의 통역을 맡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교우들의 거룻배가 오지나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사방을 두루 살피곤 했습니다. 언젠가는 통역을 위해 이웃 섬으로 갔다 돌아오는 배 안에서 비밀리에 신자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구조선이 신시도에 도착했을 때, 최양업 부제는 홀로 섬에 남겠다고 프랑스 함장에게 부탁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상해로 돌아가는 뱃길에서 최양업 부제는 하염없이 눈물을 뿌리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희는 아직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느님의 전능하시고 지극히 선하신  
섭리에 온전히 의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느님 안에서 영원히 희망을 가질 것입니다.  
주님, 저희의 비탄함을 보시고,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소서!”

◆ 주님의 기도, 성모송(10번), 영광송, 구원의 기도

## ○ 빛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하며,  
충주 출신 ‘하느님의 종’ 이기연, 이부춘, 권아기련의  
시복 시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849년 4월 15일. 최양업 신부님은 마침내 상해 장가루 성당에서 고  
대하던 사제품을 받고 첫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승  
신부님께 올린 서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의 미천함과 연약함을 생각하면 너무도 커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그러우신 하느님의 자비로 지극히 무능하고  
미천한 제가 존엄하신 하느님께 미사성제를 드리는  
권능을 수여받았음은 큰 위로입니다.”

이후 최양업 신부님은 백령도로 가서 다시 한 번 귀국을 모색했지만  
실패하고 요동으로 건너갑니다. 신부님이 도착한 곳은 요동 차쿠에 있  
는 ‘눈의 성모 성당’이었습니다. 7년 전인 1842년에 소팔가자로 가기  
위해 잠시 머물렀던 백가점 마을이 바로 차쿠입니다.

신부님은 차쿠 성당의 베르뇌 주임 신부님 아래서 첫 사목을 시작했  
습니다. 1849년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이었습니다. 이로써 최  
양업 신부님은 중국 땅에서 중국인 신자들을 대상으로 사목한 최초의  
한국인 사제가 되었습니다.

◆ 주님의 기도, 성모송(10번), 영광송, 구원의 기도

## ○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하며,  
진천 새울 출신 ‘하느님의 종’ 김준기 안드레아의 시복 시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849년 12월 말, 최양업 신부님은 스승 매스트르 신부님과 함께 차  
쿠 성당을 떠나 변문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미리 약속한 대로 조선  
교회의 밀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가움도 잠시…… 밀사들은 매스트르 신부님의 동반 입국을 만류  
했습니다. 서양인이 입국하기에는 너무나 큰 위험이 따른다는 이유 때  
문이었습니다. 최양업 신부님은 할 수 없이 매스트르 신부님과 이별하  
고, 밀사들을 따라 눈보라치는 압록강 얼음 위를 건넌습니다.

“모든 기대와 희망을 하느님의 자비하신 전능에 의지하고  
의주 성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체포될 각오를 단단히 하고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은  
칠흑같이 캄캄하였고, 눈보라까지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강변의 혹독한 추위에 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행을 제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혹독한 날씨 때문에 경비병들이  
꼼짝없이 실내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신부님은 이처럼 열다섯의 나이로 조국을 떠난 지 자그마치 13년 만  
에 다시 조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 주님의 기도, 성모송(10번), 영광송, 구원의 기도

## ○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 맞으심을 묵상하며,  
충주 광별 출신 '하느님의 종' 민윤명 프란치스코 회장의  
시복 시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서울에 도착한 최양업 신부님은 페레올 주교님과 다블뤼 신부님을  
방문하고는 즉시 교우촌 순방에 나서서 6개월 동안 다섯 개 도를 돌아  
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신부님을 반겨주는 이들은 박해와 가난에 찌든 교우들  
이었습니다. 그들은 깊은 산골짜기에서 움막을 짓고 어렵게 살고 있  
었지만, 신심만은 아주 굳건했습니다. 최양업 신부님의 편지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우촌을 순방할 때마다 저는 가난에 찌든 교우들의 궁핍하고  
비참한 처지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와줄 능력이 없으므로 한없이 가슴이 미어집니다.  
교우들은 동포들로부터 오는 박해, 부모 형제로 인한 박해, 친척과  
이웃들로 인한 박해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서도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험준한 골짜기로 들어가  
움막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교우들을 버티게 해준 것은 참 믿음살이였습니  
다. 그들은 언젠가 목자를 만나고, 성사의 은총을 받게 되리라는 희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 주님의 기도, 성모송(10번), 영광송, 구원의 기도

### ○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하며,  
청주 금봉 출신 '하느님의 종' 전 야고보의 시복 시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양업 신부님이 담당한 지역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프랑  
스 선교사들이 박해의 위험 때문에 방문할 수 없는 오지들이었습니다.  
신부님은 해마다 7천 리를 걸어야 했으며, 많을 때는 127개나 되는 공  
소를 순방해야만 하였습니다. 개중에는 독수리둥지처럼 높은 산꼭대  
기에 위치한 공소들도 있었습니다.

신부님은 교우촌 순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저는 비신자들이 알지 못하게 교우촌에 도착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한밤중에 모든 일을 마치고  
동이 트기 전에 그곳을 떠나야만 합니다.  
이별에 앞서 공소집 전체는 늘 울음바다가 되고,  
교우들의 탄식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길고 긴 기도문을 청산유수처럼 외우는 어린이와 한 줄의 기도문이  
라도 더 배우고 싶어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언제나 최양업 신부  
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만날 때마다 신부님은 자신이  
겪은 고통을 잊곤 하였습니다.

◆ 주님의 기도, 성모송(10번), 영광송, 구원의 기도

## ○ 고통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하며,  
보은 명예목 출신 ‘하느님의 종’ 최용운 암브로시오의  
시복 시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은의 구병산 자락에 위치한 명예목 마을도 박해를 피해 하나둘 모여든 교우들이 함께 일군 교우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이 나서 마을이 몽땅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우들은 조금도 근심하거나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재난을 당하고서도 말입니다.

그때 한 외교인이 이러한 정황을 보고는 이상하게 생각해서 교우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교우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좋은 일이나 궂은일이나  
모두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지극히 좋으신 하느님께 의탁하며,  
하느님의 헤아릴 수 없는 안배를 칭송할 뿐입니다.”

그 외교인은 여기에 감동하여 곧 기도문과 교리 문답을 배우기 시작하였고, 교회 규범도 실천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세례명을 ‘바오로’로 정하고, 명예목을 방문한 최양업 신부님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 주님의 기도, 성모송(10번), 영광송, 구원의 기도

## ○ 고통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하며,  
괴산 연풍 출신 ‘하느님의 종’ 김 마르티노, 김 마태오 부자의  
시복시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양업 신부님은 교우촌 순방 도중에 신앙을 증오하는 무리들로 인  
해 위험에 처하곤 했습니다. 그중에는 밀고자와 배교자들도 섞여 있었  
습니다.

어느 해 겨울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예정대로 교우촌에 도착하지  
못한 채, 매서운 추위를 피할 요량으로 한 주막에 유숙하게 되었습니  
다. 그런데 주막 주인이 신부님 일행을 관가에 고발하였고, 관장은 신  
부님 일행에게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포졸들과 비신자들의  
행패가 시작되었습니다.

“포졸들은 주민들과 함께 횃불을 들고  
주막으로 와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우리들의 옷을 찢고, 신발과 갓을 빼앗고, 상처투성이로  
만든 후 마을 밖으로 추방했습니다.  
우리는 주막에서 쫓겨나면서 매를 흠씬 두들겨 맞고,  
반쯤 나체가 되어 강추위로 몸이 쪼글쪼글 얼어붙었습니다.  
눈이 깊이 쌓여 발은 무릎까지 푹푹 빠졌고, 능욕과 고통으로  
몸과 마음이 모두 탈진해버렸습니다.”

◆ 주님의 기도, 성모송(10번), 영광송, 구원의 기도

## ○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하며,  
배티 교우촌에서 일군 은총의 성가정, 복자 송 베드로,  
송 베네딕토, 이 안나의 시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853년 여름부터 3년 동안 최양업 신부님은 배티 교우촌을 자신의 본당 중심지로 삼고 전국을 순방하였습니다. 그때 배티 마을에는 아주 신심이 깊은 스무 가족 120명의 교우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신부님이 성당 겸 사제관으로 사용하던 방 두 칸짜리 초가집은 1850년에 다블뤼 신부님이 조선대목구 신학교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집입니다. 최양업 신부님은 이곳에서 신학생들을 지도하였고, 1854년 3월에는 이들 중 세 명을 뽑아 말레이시아의 페낭 신학교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지난봄에 세 학생을 강남의 거룻배를 태워  
상해로 보냈는데, 그들이 신학교까지 무사히  
도착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건강하게 잘들 있는지요?  
학생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겸손을  
잘 깨닫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신부님은 이후 페낭 유학생들에게 자주 편지를 보내 깊은 애정과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조선 교회의 또 다른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1866년의 병인박해가 모든 희망을 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 주님의 기도, 성모송(10번), 영광송, 구원의 기도

## ○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하며,  
세계 평화와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양업 신부님은 복음 안에서 조선의 동포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살았습니다. 신부님은 조국 사랑을 품안에 간직한 채 하루하루를 살았고, 그래서 조국의 구원 사업을 위한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주님, 바싹 말라버린 저희에게 자비의 소나기를  
퍼부어 주소서! 진리에 목말라 있는 동포들에게  
구원의 물을 실컷 마시게 해 주소서!”

귀국 직후 최양업 신부님이 가장 먼저 목격한 것은 비위생적인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교우들이었습니다. 이에 신부님은 스승 신부님에게 정수 방법을 배워 널리 보급하였습니다.

신부님은 서양의 구리철사와 조선의 율무, 전통 매듭을 이용하여 목주를 제작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율무 목주’가 바로 그것입니다. 신부님은 자주 스승 신부님에게 성물과 상본을 청해 교우들에게 나누어주었고, 프랑스에서 손퐁금을 들여와 성가를 가르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 주님의 기도, 성모송(10번), 영광송, 구원의 기도

### ○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목상하며,  
교황님의 영육 간 건강과 지향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기도합니다.

어화우리 벗님네야 우리본향 찾아가세  
동서남북 사해팔방 어느곳이 본향인고  
우주간에 빚겨서서 조화묘리 살펴보니  
이렇듯한 풍진세계 안거할곳 아니로다  
인간영복 다얻어도 죽어지면 헛것이오  
세사고난 다받아도 죽어지면 없으리라.

전통 가사의 운율을 적용해 누구나 외우기 쉽게 만든 천주가사 <사향가>의 첫 부분입니다. 글을 알지 못하는 교우들을 위해 최양업 신부님이 저술한 것입니다. 이 천주가사는 교우들의 신심 함양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 수없이 필사되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천주가사는 교리 토착화의 결과요, 한국 천주교회의 무형 문화재입니다.

신부님은 최초의 한글 기도서인 『천주성교공과』와 한글 교리서인 『성교요리문답』의 번역 작업도 담당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말을 하시도록 힘쓰신 것입니다.

◆ 주님의 기도, 성모송(10번), 영광송, 구원의 기도

## ○ 영광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올리심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이웃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청주교구와  
교구를 이끄시는 주교님과 사제, 부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860년 가을, 최양업 신부님은 경신박해를 피해 경상도 남부의 죽림  
공소에 잠시 은거하였습니다. 포졸들은 교우들을 체포한 뒤 모든 것을  
약탈하고 불 질렀습니다. 동정녀 아가타는 체포되었다가 가까스로 석  
방되기는 했지만, 피신 과정에서 탈진하여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느님의 구원 사업은 너무나 멀게만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영  
혼의 구원을 절실하게 원하는 교우들을 생각하면 죽림에서 좌절하고  
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은 밤잠을 잊은 채 교우들을 찾  
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를 재난에서 구원하소서!  
저희의 모든 희망이 당신 자비 안에 있습니다.  
인자하신 하느님, 저희의 잘못을 기억하지 마시고,  
저희의 죄악대로 저희를 벌하지 마소서!  
만일 주님께서 저희의 불의를 헤아리신다면  
누가 감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 주님의 기도, 성모송(10번), 영광송, 구원의 기도

## ○ 영광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 모후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하며,  
청주교구 교우들이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은총의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합니다.

교우들을 위해 자신의 고통을 잊고 살았던 착한 목자요 땀의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하느님께서서는 마침내 사랑하는 아들을 당신 곁에 두려고 신부님의  
발목을 붙잡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이제 그만 쉴 때가 되었다.”

1861년 6월 15일로, 신부님의 나이 만 40세였습니다.

신부님께서 선종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베르뇌 주교님과 동료 폐롱  
신부님은 그 애달픈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굳건한 신심과 불같은 열정. 훌륭한 분별력.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했던 토마스 신부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12년 동안  
성공적으로 영혼 구원에 힘썼습니다.  
토마스 신부님이 쓰러진 것은 과로와 장티푸스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낮으로 80리 내지 100리를 걸었으며,  
밤에는 고해를 듣고 날이 새기 전에 떠나야 했습니다.  
그가 한 달 동안에 취할 수 있었던  
휴식은 나흘 밤을 넘지 못했습니다.”

◆ 주님의 기도, 성모송(10번), 영광송, 구원의 기도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자비를 잊지 마소서.

저희의 모든 희망이 당신의 자비 안에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의 잘못과 죄과를 기억하지 마시고,

저희의 죄악대로 저희를 벌하지 마소서!

저희는 죄를 지었고 너무나 많은 불의를 행하였습니다.

당신이 만일 저희의 불의를 헤아리신다면

누가 감히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희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옛 자비를 기억하시어

저희와 당신 성인들의 기도를 어여뻐 들어 허락하소서.”

\*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가 경신박해 때 죽림에서 쓴  
마지막 서한 중에서